

原子力發電은 必須的 에너지源

大 會 長 朴 正 基

世界原子力界의 지도자와 학자 여러분, 그리고 内外貴賓 여러분, 오늘 歷史깊은 東洋의 古都 서울에서 第5次 太平洋沿岸國原子力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各國에서 오신 代表團 여러분의 訪韓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原子力을 통해 平和와 繁榮을 이룩하고자 하는 人類 公同의 뜨거운 念願과, 같은 뜻아래 같은 길을 걸어가는 同伴者의 友情으로 가득찬 이 會議場의 높은 理想에 대해 주최측의 대표자로서 敬意를 드리는 바입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内外貴賓과 紳士淑女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멀리 바다를 건너 찾아 주신 外國參席者 여러분에게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세계의 많은 碩學들은 2천년대를 太平洋의 時代가 될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토인비」나 「허만·칸」의 豫言을 들지 않더라도 세계의 중심이 大西洋에서 太平洋으로 옮겨 오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닌 人的·物的資源의 무한한 可能性과 各國의 협력이 조화를 이룰때 우리는 世界史의 主役으로서 틀림없이 번영하는 새 歷史를 創造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原子力分野는 이러한 우리들의 希望을 실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産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미 이 原子力産業은 太平洋地域에서 가장 活氣를 띄고 있으며 관계자들의 關心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原子力發電의 活性化는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天然에너지資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으며, 이제 많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原子力發電은 選擇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必須的인 에너지源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原子力은 모든 人類에게 주어진 共同의 遺産입니다. 原子力科學技術이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단체의 專有物이 될 수는 없습니다.

原子力産業의 開發과 利用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人種과 文化



와 國境을 초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協力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太平洋地域은 원자력산업분야의 先進國과 開發途上國 그리고 開發推進國이 共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相互補完的 協力體制의 구축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核에너지가 언제까지나 「다모클레스의 칼」과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만을 주는 대상으로 남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平和的으로 개척해 나가는 일은 이 時代를 살아가는 우리 知性人들의 義務이며 보람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같은 念願과 努力은 틀림없이 보다 크고 넓게 확산될 것으로 믿으며 여러분들의 건투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紳士淑女 여러분.

5월은 新綠의 계절이며 生命의 달입니다. 詩人들은 新綠을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禮讚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는 우리 人類의 理想인 平和와 繁榮의 실현을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곳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 코리아입니다. 世界人的 大祭典인 '86 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平和를 가꾸어 나가는 東邦의 등불 코리아입니다. 따라서 平和와 前進의 의지가 충만한 이 코리아에서의 이번 會議은 틀림없이 原子力産業의 發展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도약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會議과 함께 열리는 太平洋沿岸國 原子力展示會도 참가자들의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곳 한국에는 오랜 傳統文化와 함께 秀麗한 산과 강이 있고 따뜻한 友情과 親切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會議를 마친 후에 계획된 産業視察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참모습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外國에서 오신 친구여러분의 滯韓期間이 뜻 깊고 유쾌하기를 빌며, 이 會議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美國原子力學會와 관계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